

수신자 각 정당

(경유)

일 시 2020년 3월 27일

제 목 [트랜스해방전선] 총선 정국 각 정당 트랜스젠더 의제 질의의 건

1. 귀 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트랜스해방전선은 트랜스젠더퀴어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지난 2017년 발족 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트랜스젠더퀴어 가시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특히 트랜스해방전선은 지난 2월 총회를 통해 변희수 하사님과 숙명여대 입학생 A님으로 시작된 2020년을 “트랜스젠더퀴어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가시화의 해로 천명했습니다.
3. 트랜스해방전선은 총선을 맞아 트랜스젠더 의제에 대한 질의서를 준비했습니다. 귀 정당의 답변은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4. 질의서를 작성하신 후에 회신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회신 마감 일자 : 3월 27일 (금) 오후 6시까지
- 회신처 : freetrans1225@gmail.com

붙임1. 총선 정국 각 정당 트랜스젠더 의제 질의서

붙임2. 법적성별정정 제정 촉구 서명 (4113명)

트랜스해방전선



담당 정성광 집행위원장

대표 김겨울

협조자

시행 TLF2020-01

(2020. 3. 27.)접수

(2020. 03. 20)

/이메일 freetrans1225@gmail.com /페이스북 @freetrans1225 /트위터 @freetrans1225

번호	질문	예	아니오
4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관련 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동의하십니까?	V	<input type="checkbox"/>
	- 법원은 지금까지 성별정정 과정 중 외부성기 성형 수술을 요구해왔습니다.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온 것입니다. 게다가 막대한 수술 비용과 트랜지션 관련 의료 비용은 모두 의료 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모두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의료적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관련 의료를 담당할 병원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건강권 역시 침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관련 건강 보험을 급여화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5	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에 동의하십니까?	V	<input type="checkbox"/>
	- 한국의 대부분의 화장실은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공용화장실입니다. 이는 법으로도 규정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여자화장실이 없고 남자화장실만 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용화장실은 또 누군가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외출할 경우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물조차 마시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 트랜지션을 원하지 않거나 트랜지션 중에 있는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 이용시 낙인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몸에 불화를 느끼는 디스포리아가 더욱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입각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 (1인 화장실)은 필수입니다. 공용 화장실이 아닌 1인 화장실의 디자인을 장애인, 가족, 성소수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면 현재의 많은 화장실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에 동의하십니까?		
6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녹색당은 성별 · 성적지향 · 성별표현 등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혼인평등 보장,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표시 삭제, 성별정정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주요한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p> <p>또한,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트랜지션 관련한 의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모두의 차별과 불편 없는 화장실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중립화장실 법제화에 동의합니다.</p> <p>녹색당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성별이분법과 성별위계를 타파하고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 그대로 존중받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 답변의 마감 시한은 3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답변은 예 / 아니오로 체크 해주시고 기타 의견을 적어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마감 시한까지 회신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총선 정국 각 정당 트랜스젠더 의제 질의서

○ 정당명 :노동당

○ 부서 : 정책위원회

○ 담당자 :

○ 연락

번호	질문	예	아니오
1	트랜스젠더인권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V	<input type="checkbox"/>
	- 현재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아닌 대법원 예규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별 정정은 물론, 성별이분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해 작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트랜지션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고용차별, 노동권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트랜지션의 경우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삶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트랜스젠더 인권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트랜스젠더 인권법을 제정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2	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에 동의하십니까?	V	<input type="checkbox"/>
	-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부터 주민번호 뒷자리의 첫 자리를 제외한 모든 번호를 무작위로 부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자리만 남겨놓는 것은 트랜스젠더커뮤니티의 차별을 묵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난수화하여 사회보장번호로 대체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3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V	<input type="checkbox"/>
	- 최근 성별정정에 관한 대법원 예규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트랜스젠더들의 성별정정에 관한 법률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이 없기에 판사의 개개인의 양심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서 외부성기 수술 강요, 생식능력제거, 연령제한, 미성년자녀가 없을 것을 요구, 혼인 중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인권침해가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랜스해방전선은 지난해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약 4000여명의 시민들이 이에 서명해주셨습니다.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번호	질문	예	아니오
4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관련 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동의하십니까?	V	<input type="checkbox"/>
	- 법원은 지금까지 성별정정 과정 중 외부성기 성형 수술을 요구해왔습니다.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온 것입니다. 게다가 막대한 수술 비용과 트랜지션 관련 의료 비용은 모두 의료 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모두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의료적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관련 의료를 담당할 병원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건강권 역시 침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관련 건강 보험을 급여화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5	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에 동의하십니까?	V	<input type="checkbox"/>
	- 한국의 대부분의 화장실은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공용화장실입니다. 이는 법으로도 규정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여자화장실이 없고 남자화장실만 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용화장실은 또 누군가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외출할 경우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물조차 마시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 트랜지션을 원하지 않거나 트랜지션 중에 있는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 이용시 낙인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몸에 불화를 느끼는 디스포리아가 더욱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입각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 (1인 화장실)은 필수입니다. 공용 화장실이 아닌 1인 화장실의 디자인을 장애인, 가족, 성소수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면 현재의 많은 화장실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에 동의하십니까?		
6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한국 트랜스젠더 의제와 인권 상황에 대해 귀 당의 입장이나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세요. 노동당의 성정치는 '나 자신'이 여자, 남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등등의 꼬리표에 휘둘리며 살기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지지하며 주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밝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서 나아가 남자와 여자,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비트랜스젠더와 트랜스젠더 등의 구분을 허물고 이분법적 세계를 다양성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당의 성정치는 도덕적 금기가 넘쳐나고 혐오와 차별이 대대적으로 두드러 강력하게 저항하면서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자 합니다. 가족과 노동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통해 보다 넓고 다채롭게 성의 다양성, 그 규정지을 수 없는 지점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입니다.		

트랜스해방전선		트랜스해방전선	
총선 정국 각 정당 트랜스젠더 의제 질의서			
○ 정당명 : 미래당		○ 부서 : 정책국	
○ 담당자 :		○ 연락처 :	
번호	질문	예	아니오
1	트랜스젠더인권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현재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아닌 대법원 예규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별 정정은 물론, 성별이분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해 작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트랜지션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고용차별, 노동권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트랜지션의 경우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삶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트랜스젠더 인권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트랜스젠더 인권법을 제정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2	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에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부터 주민번호 뒷자리의 첫 자리를 제외한 모든 번호를 무작위로 부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자리만 남겨놓는 것은 트랜스젠더퀴어들의 차별을 묵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난수화하여 사회보장번호로 대체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3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최근 성별정정에 관한 대법원 예규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트랜스젠더들의 성별정정에 관한 법률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이 없기에 판사의 개개인의 양심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서 외부성기 수술 강요, 생식능력제거, 연령제한, 미성년자녀가 없을 것을 요구, 혼인 중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인권침해가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랜스해방전선은 지난해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약 4000여명의 시민들이 이에 서명해주셨습니다.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번호	질문	예	아니오
4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관련 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법원은 지금까지 성별정정 과정 중 외부성기 성형 수술을 요구해왔습니다.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온 것입니다. 게다가 막대한 수술 비용과 트랜지션 관련 의료 비용은 모두 의료 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모두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의료적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관련 의료를 담당할 병원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건강권 역시 침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관련 건강 보험을 급여화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5	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한국의 대부분의 화장실은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공용화장실입니다. 이는 법으로도 규정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여자화장실이 없고 남자화장실만 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용화장실은 또 누군가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외출할 경우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물조차 마시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 트랜지션을 원하지 않거나 트랜지션 중에 있는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 이용시 낙인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몸에 불화를 느끼는 디스포리아가 더욱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입각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 (1인 화장실)은 필수입니다. 공용 화장실이 아닌 1인 화장실의 디자인을 장애인, 가족, 성소수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면 현재의 많은 화장실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에 동의하십니까?		
6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한국 트랜스젠더 의제와 인권 상황에 대해 귀 당의 입장이나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세요. 트랜스해방전선을 응원합니다!		
<p>• 답변의 마감 시한은 3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답변은 예 / 아니오로 체크 해주시고 기타 의견을 적어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마감 시한까지 회신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답신] : 2020. 3. 20일자 [트랜스해방전선] 총선 정국 각 정당 트랜스젠더 의제 질의의 건

저희 당의 상황상 PDF를 편집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따로 답변서를 첨부해드립니다.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답신일자 : 2020. 03. 24

○ 정당명 : 기본소득당

○ 부서 : 공보팀

○ 담당자 : 김민정

○ 연락처 : 기본소득당 (02-1234-5678)

□ 답신내용

1. 트랜스젠더인권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 예
2. 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에 동의하십니까? : 예
3.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 예
4.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관련 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동의하십니까? : 예
5. 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에 동의하십니까? : 예
6. 기타

기본소득당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5대 공공사회정책의 무상 및 확대강화를 기반으로 더 나은 한국사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남녀결합의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법제도와 사회복지구조를 넘어서 개인이 개인으로써 오롯이 존중 받고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기본소득당은 기획하고 있습니다.

4번 질문의 경우 추가 덧붙이자면 기본소득당은 5대공공사회서비스 확장정책 ④ - "전국민 무상의료 실시와 공공병원 확대"를 통하여, 당신이 누구든 건강을 보장받는 사회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귀 단체의 활동에 연대와지지를 보냅니다. 기본소득당도 **‘당신이 누구든 조건없는 월60만원 기본소득’**이라는 핵심정책 메시지에 걸맞게 4.15 총선에서 정책질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선 정국 각 정당 트랜스젠더 의제 질의서

○ 정당명 : 민중당

○ 부서 : 인권위원회

○ 담당자 :

○ 연락처

번호	질문	예	아니오
1	트랜스젠더인권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현재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아닌 대법원 예규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별정정은 물론, 성별이분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해 작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트랜지션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고용차별, 노동권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트랜지션의 경우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한국에서는 제대로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삶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트랜스젠더 인권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트랜스젠더 인권법을 제정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2	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에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부터 주민번호 뒷자리의 첫 자리를 제외한 모든 번호를 무작위로 부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자리만 남겨놓는 것은 트랜스젠더커뮤니티의 차별을 묵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난수화하여 사회보장번호로 대체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3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최근 성별정정에 관한 대법원 예규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트랜스젠더들의 성별정정에 관한 법률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이 없기에 판사의 개개인의 양심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서 외부성기 수술 강요, 생식능력제거, 연령제한, 미성년자녀가 없을 것을 요구, 혼인 중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인권침해가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랜스해방전선은 지난해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약 4000여명의 시민들이 이에 서명해주셨습니다.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번호	질문	예	아니오
4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관련 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법원은 지금까지 성별정정 과정 중 외부성기 성형 수술을 요구해왔습니다.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온 것입니다. 게다가 막대한 수술 비용과 트랜지션 관련 의료 비용은 모두 의료 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모두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의료적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관련 의료를 담당할 병원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건강권 역시 침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관련 건강 보험을 급여화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5	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에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한국의 대부분의 화장실은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공용화장실입니다. 이는 법으로도 규정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여자화장실이 없고 남자화장실만 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용화장실은 또 누군가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외출할 경우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물조차 마시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 트랜지션을 원하지 않거나 트랜지션 중에 있는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 이용시 낙인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몸에 불화를 느끼는 디스포리아가 더욱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입각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 (1인 화장실)은 필수입니다. 공용 화장실이 아닌 1인 화장실의 디자인을 장애인, 가족, 성소수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면 현재의 많은 화장실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에 동의하십니까?		
6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한국 트랜스젠더 의제와 인권 상황에 대해 귀 당의 입장이나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세요. 민중당의 총선공약에는 [성별정정 제도 개선 및 성적 소수자 권리 증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까다로운 요건들을 완화하고, 영유아 성기 성형수술 강요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별이분법에 벗어난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민중당도 힘쓰겠습니다.		
<p>* 답변의 마감 시한은 3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답변은 예 / 아니오로 체크 해주시고 기타 의견을 적어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마감 시한까지 회신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트랜스젠더 의제 질의서

○ 정당명 : 정의당

○ 부서 : 정책위원회

○ 담당자 :

○ 연락처 :

1. 질의

번호	질문	예	아니오
1	트랜스젠더인권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radio"/>	
2	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radio"/>	
3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radio"/>	
4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관련 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radio"/>	
5	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radio"/>	
6	한국 트랜스젠더 의제와 인권 상황에 대해 귀 당의 입장이나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세요 → 제21대 총선에서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약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 행위 규제와 처벌 법 제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을 약속하였으며, 법 제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총선 정국 각 정당 트랜스젠더 의제 질의서

○ 정당명 : 가자환평당
○ 담당자 :

○ 부서 : 선거과
○ 연락처 :

번호	질문	예	아니오
1	트랜스젠더인권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현재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아닌 대법원 예규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별정정은 물론, 성별이분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해 작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트랜지션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고용차별, 노동권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트랜지션의 경우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한국에서는 제대로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삶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트랜스젠더 인권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트랜스젠더 인권법을 제정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2	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부터 주민번호 뒷자리의 첫 자리를 제외한 모든 번호를 무작위로 부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자리만 남겨놓는 것은 트랜스젠더퀴어들의 차별을 묵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난수화하여 사회보장번호로 대체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3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최근 성별정정에 관한 대법원 예규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트랜스젠더들의 성별정정에 관한 법률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이 없기에 판사의 개개인의 양심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서 외부성기 수술 강요, 생식능력제거, 연령제한, 미성년자녀가 없을 것을 요구, 혼인 중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인권침해가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랜스해방전선은 지난해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약 4000여명의 시민들이 이에 서명해주셨습니다.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번호	질문	예	아니오
4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관련 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법원은 지금까지 성별정정 과정 중 외부성기 성형 수술을 요구해왔습니다.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온 것입니다. 게다가 막대한 수술 비용과 트랜지션 관련 의료 비용은 모두 의료 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모두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의료적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관련 의료를 담당할 병원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건강권 역시 침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관련 건강 보험을 급여화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5	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한국의 대부분의 화장실은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공용화장실입니다. 이는 법으로도 규정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여자화장실이 없고 남자화장실만 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용화장실은 또 누군가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외출할 경우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물조차 마시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 트랜지션을 원하지 않거나 트랜지션 중에 있는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 이용시 낙인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몸에 불화를 느끼는 디스포리아가 더욱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입각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 (1인 화장실)은 필수입니다. 공용 화장실이 아닌 1인 화장실의 디자인을 장애인, 가족, 성소수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면 현재의 많은 화장실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에 동의하십니까?		
6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한국 트랜스젠더 의제와 인권 상황에 대해 귀 당의 입장이나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세요.		
<p>* 답변의 마감 시한은 3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답변은 예 / 아니오로 체크 해주시고 기타 의견을 적어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마감 시한까지 회신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